

## LNK 주간 기도(0423)

### 1.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03~2011 년 연간 2,000 명~3,000 명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2012 년 이후 평균 1,300 명대로 감소, 2021 년과 2022 년에는 60 명 대로 급감하다가, 2023 년에 196 명으로 증가, 24 년에는 그보다 약 20% 많은 236 명이였다. 탈북 동기는 ‘자유를 찾아서’가 ‘식량 부족’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는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이 아닌 ‘자유를 찾아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자유 세계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회 선교연구원 주간 보고서 내용으로 탈북민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45 장 7~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에 따라 북한 주민을 그 땅의 기근과 압제를 통해 남한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선을 넘어 먹을 것과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그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에 탈북의 길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여시고 대로를 닦으사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열방에 다니게 하시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남한도 통일을 원하고,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다른 통일을 말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독재체제 이념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적 적화통일을 원하고, 남한은 평화통일을 원한다.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적인 통일을 원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북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직 복음으로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뛰여난 지혜와 통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 장 9-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통일을 원하지만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적화통일을 원하는 북한과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을 원하는 남한의 모든 생각과 견고한 진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음으로만 북한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남북한이 알고 복음 증거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영국인 유튜버가 평양 방문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가 북한 가이드에게 “북한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나요?”라고 묻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라고 김정은을 칭송했다. 그는 또한 관광 중에 가이드를 떠나지 않을 것, 가이드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을 것, 김정은을 무시하는 언사를 하지 않을 것, 종교적인 물건을 퍼뜨리지 않을 것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유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그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보좌들이든 주권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권세들이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유보다 먼저 계시며 그의 안에서 만유가 함께 서 있다”

골로새서 1 장 15~1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을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김씨 일가는 창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굴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잔악한 손은 꺾이고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옵소서. 만유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북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특별경비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를 이뤄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 주택가와 주요 도로를 순찰하는 안전부 인력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만약 형식적으로 경비를 서다가 적발되면 해당 인민반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때문인지 북한 주민에게 명절은 또 하나의 고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국가 밀수도 일시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이 야기되든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복음이 북한 주민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내 령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억눌린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너희 얼굴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리라”

시편 34 편 2~5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김일성 생일에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느라 피곤한 북한 주민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억눌림이 오히려 북한 주민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계기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5. 영육의 양식과 돌봄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임신·출산으로 숨지는 여성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17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등에서 발간한 <2000~2023 모성사망률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 년 모성사망비(10 만 명 당 임신 기간 및 출산 42 일 이내에 숨지는 임산부 비율)는 극심한 기근이 지속된 지난 2000 년 129 명이었지만, 2010 년 77 명으로 개선되었고, 2023 년에는 67 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 2023 년 모성사망비는 197 명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배려하시니 당신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 장 1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경제난과 영양실조, 의료 공백 속에 죽어가는 북한의 임산부와 태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고통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도움과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필요한 양식과 돌봄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영의 굶주림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